

코나무로 콧병 고치는 코 전문 한의사

알레르기 비염·축농증 수술 없이 다스린다. 축농증·비염 개선 한방 치료제 '청비환'



▲ 이환용 원장 (한의학 박사)



▲ 이환용 원장의 방송 출연 모습



▲ 한의학박사 이환용 원장이 개발한 청비환



▲ 축농증·비염 개선 한방 치료제 '청비환'

코나무 껍질과의 만남

이환용 원장이 한의대 학생 때의 일이다. 잘 알고 지내던 한복집 할머니(윤○○ 70세, 노량진)가 코나무 껍질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복가게 옆집 할머니가 축농증을 치료하러 병원으로 가던 중 길에서 코나무 껍질을 파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코나무가 축농증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속을 썪 치고 사와서 달여먹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할머니를 괴롭히던 축농증이 나았다.

친구인 한복집 할머니가 30여 년간 축농증으로 맛도 모르고 냄새도 못 맡고 지내는 것이 안타깝게 코나무 껍질을 한 조각 주면서 구해다 먹으라고 권했고, 한복집 할머니는 이 원장에게 코나무 껍질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원장은 할머니에게 코나무 껍질을 구해다 주었는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

한복집 할머니는 30년 동안 축농증 때문에 냄새도 못 맡고 음식 맛도 모르고 지내서 불편이 많았는데 코나무 껍질을 달여먹고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음식 맛도 알게 되었으며 축농증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이다.

코 질환 치료시 코나무 껍질 사용법

코나무를 약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20g 정도의 유근피(한약방에서 구

하면 되는데 느릅나무의 줄기 껍질이 아닌 뿌리 껍질이어야 함)를 물 두 대접 가량에 넣고 달인다. 30분 정도 달여 콧물처럼 물컹물컹해지면 찌꺼기를 건져내고 그 물을 하루 분량으로 하여, 2~3번에 나누어 마시면 된다.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으면 웬만한 콧병은 한 달 이내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맛이 그다지 거부하지 않아 어린이들도 잘 먹을 수 있다. 오래된 콧병도 치료할 수 있으며, 한 번 완전히 치료하고 나면 재발하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코나무 껍질이 다양한 코 질환을 모두 단기간에 쉽게 완치시켜 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 원장은 여러 가지 콧병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코나무 껍질에 특정 약재를 가미할 경우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콧병 비방약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유근피에다 살구씨, 목련꽃봉오리, 수세미 등을 가미해 만든 알약인 청비환(淸鼻丸)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이 약을 이용해 치료한 콧병 환자는 모두 수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현대 의학으로 콧병을 고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찾아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30년 코 질환을 해결해준 코나무 껍질



▲ 이환용 원장과 사연 속 할머니

청비환의 약효 치료 사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강○○ 군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감기에 자주 걸리고 코가 막혀서 3분 간격으로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는 등 축농증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강군의 성적은 계속 떨어졌다. 감기에 걸릴 때마다 축농증의 증세가 심해져 주사기로 고름을 제거하곤 했는데, 그토록 심하던 축농증이 청비환을 1개월 가량 복용하자 깨끗이 완치됐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 한 번도 병원에서 고름을 제거하지 않았다. 강군의 부모는 아이의 학기 말 성적이 상위권을 차지했다며 고마워했다.

일산에 사는 고○○ 씨는 코질환으로 지독히 고생해 온 사람이다. 코뼈를 잘라내는 수술, 레이저 수술과 더불어 약도 상시로 복용하고 한약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 년 열두 달 코막힘, 재채기, 콧물, 눈·코·가려움 등의 증세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늘 물건을 잃어버리고 살림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

4년 동안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해서 어린 딸 아이에게 무슨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음식이 쉬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청비환 복용 후, 심한 코막힘이 없어졌고 아주 미세한 냄새까지 다 맡을 수가 있게 되었다. 청비환을 복용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일어난 기적같은 일이었다. 고 씨는 재채기도 하지 않고 코질환에서 해방되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며 즐거워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최○○ 씨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무척 고생해왔다. 멈출 줄 모르고 흐르는 콧물과 눈물, 재채기로 불편함이 상당했다. 미국에서 유학하며 치료하려고 애썼지만 효과는 그 때뿐이었고 똑같은 증상들이 반복되곤 했다. 그런데 청비환을 며칠 복용하면서부터 차츰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고 다른 약과 달리 증상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최 씨는 알레르기 비염이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완치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미국에 돌아가서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청비환을 권하고 싶다고 했다.

동의보감의 코나무 껍질 효능

코나무 껍질은 유근피를 말하는 것으로 종기의 성약이나 궤양 등의 치료에 있어서 고름과 좋지 않은 분비물을 없애주고 상처도 빨리 회복시키며 새살이 잘 나게 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작용이 코의 농을 제거하는데 효력을 발휘한다.

'동의보감'에서 코나무 껍질은 식량이 없을 때 구황작물로 쓰라고 할 정도로 독성이 없고 부드러운 뿐만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이다. 특히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으로 늘어나는 호흡기 질환에 있어 코나무 껍질은 공해 독을 씻어내며 호흡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 제주에 사는 강○○씨의 경우는 코에 생긴 코폴립으로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다가 청비환을 15일 복용해 떨어져 나가자 제주도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됐다 (떨어진 혹을 찍은 사진)

문의전화 02. 3481. 1656

오시는 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7-7 센터프라자 206호



원장님 진료시간
평일 10:30~19:00 | 토요일 09:30~17:00
점심 12:30~13:30 |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